

##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비교\*

A Comparison of Beliefs Regarding Accidents, Injury and Prevention Behaviors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김혜금(Hye-Gum Kim)<sup>1)</sup>

###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beliefs regarding injury, accidents, and prevention behaviors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The subjects were 252 mothers whose children were aged between 1 and 4 years old and 264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OVA, and partial correlation. Our results were as follows; 1) Mothers believed that by experiencing minor injuries young children would learn to recognize risk and develop their abilities to endure pain. Mothers engaged in prevention behaviors in accidents less when compared to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2) Mothers and teachers in childcare centers whose ages were below 30-years-old and whose education levels were below high school tended to believe young children would learn to recognize risk through accidents, and they engaged in prevention behaviors in accidents less. 3)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jury beliefs and prevention behaviors in accidents.

**Key Words** : 상해 신념(injury belief), 안전사고 예방행동(prevention behavior of accident), 보육교사 (teacher in childcare center).

### I. 서 론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망원인 1순위는 사고사이다. 통계청(2008)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0~14세 아동의 사망사고 3,113건 중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648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사망건수의 20.8%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1~4세 영유아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38.1%로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가정과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며 사

\* 본 연구는 2010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sup>1)</sup>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Gum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937 Jeongja-dong, Jangan-gu, Suwon 440-714, Korea  
E-mail : khghoonba@hanmail.net

고의 원인으로는 보육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

영유아의 안전은 전적으로 보육자에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육자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안전예방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Reichert & Hendricks, 1996). 성인 보육자가 영유아의 사고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잠시라도 방심할 경우 영유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미끌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경미한 사고가 영유아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운수, 추락, 익수, 화재 및 화상, 중독사고 등의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경미한 상해는 치료를 통해 영유아가 회복될 수 있지만, 심각한 상해는 영유아의 생명을 빼앗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후유증을 낳는다.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자 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주변의 잠재된 위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돌보는 책임을 지는 보육자들은 영유아로 하여금 위험에 대해 지도하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영유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Vincenten, Sector, Rogmans, & Bouter, 2005). 그러나 성인 보육자 중에는 영유아의 사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며 아이들은 다치면서 큰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보육자도 있다.

사고를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간주하거나 운이 나빠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성인 보육자들은 영유아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보육자로서의 책임 의식도 낮다(Munro, van Niekerk, & Seedat, 2005). 또한 영유아가 사고를 통해 위험을 알게 되고 영유아 스스로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거

나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믿음을 지닌 보육자도 있다(Lewis, DiLillo, & Peterson, 2004; Morrongiello & Dayler, 1996). 이러한 상해 신념을 지닌 보육자들은 영유아에게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을 배우고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함양될 것이라고 보는 상해 신념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Matheny (1987)는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영유아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영유아의 과거 상해 경험은 상해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해의 재발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Peterson, Harbeck과 Moreno(1993)는 영유아가 과거의 상해 경험을 회상한다 할 지라도, 성인 보육자가 상해의 원인을 운이 나쁜 탓으로 돌렸을 경우 동일한 사고가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상해를 예방가능한 것으로 보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성인 보육자가 돌보는 영유아는 상해를 덜 경험하고 상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상해는 일어나게 마련이며 상해를 통해 영유아 스스로 위험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보육자의 영유아는 상해를 많이 입고 그 피해 또한 크다. 이처럼 보육자는 영유아가 직면한 상해 위험을 평가하고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인 보육자의 상해에 대한 신념은 안전사고 예방행동과 관련된 다(Bennett-Murphy, 2001; Green & Hart, 1998; Munro, van Niekerk, & Seedat, 2005).

보육자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은 그들이 돌보는 영유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영유아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과신하거나 영유아는 규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 보육자는 영유아의 안전지도를 등한시 하였다(Garling & Garling, 1995; Gralinski & Kopp, 1993; Morrongiello & Kiriakou, 2004). 또한 영유아는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와 자신을 돌보아주는 보육자의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보육자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모델링은 영유아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후에도 안전한 행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발달 초기에 적절한 규칙을 배우지 못한다면 상해 위험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 보육자들은 영아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고 감독을 잘하는 편이지만 24개월 이후가 되면 안전과 관련된 규칙을 지도하는데 소홀해지며 이러한 태도는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Gralinski & Kopp, 1993). 따라서 취학전에 부모나 성인 보육자가 영유아에게 안전에 대해 제대로 지도하지 않거나 영유아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이후 아동기 상해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Peterson, Ewigman, & Kivlahan, 1993).

영유아는 진공상태에서 성장·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장소, 사람,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각 장소, 사람, 상황들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인 보육자의 안전한 행동의 모델링은 영유아의 안전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Morrongiello, Midgett, & Shields, 2001),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로 인한 상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성인 보육자의 역할은 영유아 안전사고의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되지 못했으며(Morrongiello, 2005). 안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 또한 가정과 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보육교사와 부모간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변인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해에 대한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보육교사와 어떠한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보육교사의 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경기도에 소재한 3곳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008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보육교사 300명과 그들이 보육하는 1~4세 영유아의 어머니 300명이었다. 1~4세 영유아가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가장 많이 입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성인 보육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lt;표 1&gt;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구분		어머니	구분		보육교사
연령	30세 미만	79( 31.3)	연령	30세 미만	140( 52.9)
	30세 이상	173( 68.7)		30세 이상	124( 47.1)
학력	대졸 이상	146( 57.9)	학력	대졸 이상	131( 49.7)
	고졸 이하	106( 42.1)		고졸 이하	132( 50.3)
자녀 연령	만 2세 미만	73( 29.0)	시설 유형	국공립·법인	12( 4.7)
	만 2세	80( 31.7)		민간	139( 52.6)
	만 3-5세	99( 39.3)		가정	113( 42.7)
계		252(100.0)	계		264(100.0)

7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해당 교육원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승급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어머니용은 보육교사 편으로 부탁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빠짐없이 응답한 경우는 어머니가 252명이었으며 보육교사는 264명으로 최종 연구대상은 총 516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상해 신념

상해 신념은 Lewis, DiLillo와 Peterson(2004)의 부모 상해 신념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상해경험으로부터 위험을 배우게 된다고 보는 학습요인 8 문항(예; 영유아의 상해경험은 위험한 행동의 결과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된다, 영유아가 불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불 근처에 가지 않을 것이다, 경미한 상해 경험은 영유아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그리 나쁘지 않다 등)과 상해경험으로 인해 고통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화요

인 6문항(예 : 경미한 상해의 경험은 영유아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해 줄 수 있다, 경미한 상해는 때로 영유아에게 고통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 줄 수 있다, 영유아는 다치면서 크다 등) 등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4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7점 Likert 척도가 어머니와 보육교사들이 응답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따라서 상해 신념 점수 범위는 학습영역이 8~32점, 강화영역이 6~24점이며 총 점수의 범위는 14~56점이었다. 상해 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을 더 잘 알게 되고 고통에 대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해 신념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학습영역이 .87, 강화영역이 .91로 나타났고 전체 점수의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2) 안전사고 예방 행동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Reichert와 Hendricks(199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영유아의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운수사고(2문항; 영유아가 차에 오를 때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가? 영유아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가?), 중독 사고(2문항; 약품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가? 세제류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질식사고(1문항; 딱딱한 땅콩이나 사탕, 핫도그 등을 간식으로 주지 않는가?), 화상사고(2문항; 콘센트 안전덮개를 사용하는가? 영유아가 이용하기 전 뜨거운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가?), 익수사고(1문항; 영유아가 욕조나 수영장에 있을 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독하는가?), 추락사고(1문항;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오르내리도록 지도하는가?) 등과 관련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예’는 2점, ‘아니오’는 1점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9~1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는 중독사고가 .91, 질식사고 .90, 화상사고 .88, 익수사고 .87, 추락사고 .89로 나타났고 전체 점수의 Cronbach  $\alpha$ 는 .89이었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1차로 작성된 척도가 어머니와 보육교사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유아교육 전공자 강사 1명과 아동학 전공자 강사 2명에게 문항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와 군포시 소재 어린이집 2곳의 어머니 10명과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23일에서 6월 25일까지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와 보육교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 2) 본 조사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교사교육원 3곳에서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설문지 300부를 각 교육원의 보수교육 첫 날 배부하고 당일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어머니용은 설문지에 응답해준 보육교사에게 부탁하여 개별적으로 담당학급의 학부모 1명에게 설문지를 받아 오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보육교사용은 264부를 회수하여 88%의 회수율을 보였고 어머니용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해서 252부가 회수되어 84%의 회수율을 보였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해 신념, 안전사고 예방행동에 있어서 보육교사와 부모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령과 학력에 따른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ukey HSD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

1)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의 차이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

&lt;표 2&gt;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의 비교

하위영역	어머니 (N=252)	보육교사 (N=264)	t
	M(SD)	M(SD)	
학습영역	19.33(3.65)	18.31(5.41)	6.71***
강화영역	15.77(3.95)	13.21(4.28)	8.04***
전 체	17.82(4.76)	15.44(5.11)	7.36***

\*\*\* $p < .001$ 

어머니와 보육교사는 상해 신념 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7.36, p < .001$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영역( $t=6.71, p < .001$ ), 강화영역( $t=8.04, p < .001$ )의 두 하위요인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육교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 2)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와 보육교사는 안전사고 예방 행동 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4.86, p < .001$ ). 구체적으로 운수사고를 제외하고 중독사고( $t=4.15, p < .001$ ), 질식사고( $t=4.02, p < .001$ ), 화상사

&lt;표 3&gt;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비교

하위영역	어머니 (N=252)	보육교사 (N=264)	t
	M(SD)	M(SD)	
운수사고	1.52(0.37)	1.55(4.11)	1.58
중독사고	1.73(0.49)	1.89(0.34)	4.15***
질식사고	1.21(0.82)	1.47(0.26)	2.35*
화상사고	1.33(0.61)	1.56(0.51)	3.89***
익수사고	1.28(0.39)	1.51(0.48)	3.77**
추락사고	1.77(0.55)	1.87(0.23)	4.02***
전체	1.48(0.57)	1.66(0.84)	4.86***

\* $p < .05$  \*\* $p < .01$  \*\*\* $p < .001$ 

고( $t=3.89, p < .001$ ), 익수사고( $t=3.77, p < .01$ ), 추락사고( $t=2.35, p < .05$ )의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육교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 추락사고와 질식사고의 안전 예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 2.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 및 안전사고 예방 행동 차이

### 1)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상해 신념 차이

어머니의 상해 신념이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상해 신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상해 신념을 살펴본 경우 30세 미만 어머니의 상해 신념이 30세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4.06, p < .001$ ). 즉 30세 미만의 어머니가 30세 이상보다 학습영역( $F=33.24, p < .01$ )과 강화영역( $t=16.62, p < .01$ )의 상해 신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상해 신념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은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 보다 낮은 수준의 상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해 신념의 하위영역 중 고졸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의 학습영역( $F=7.91, p < .05$ ), 강화영역( $t=11.33, p < .01$ ) 수준이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보육교사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상해 신념 차이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이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은

<표 4>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상해 신념

하위영역	연령	학력		평균
		고졸 이하 <i>M(SD)</i>	대졸 이상 <i>M(SD)</i>	
학습영역	30세 미만	22.91(6.34)	18.20(5.26)	20.55(3.83)
	30세 이상	19.11(4.11)	17.12(3.79)	18.42(4.27)
	평균	21.32(3.36)	17.73(4.01)	19.33(3.65)
강화영역	30세 미만	18.32(7.24)	15.94(3.39)	17.66(4.52)
	30세 이상	15.52(4.25)	13.50(3.67)	14.36(4.65)
	평균	16.97(6.48)	14.59(5.15)	15.77(3.95)
전 체	30세 미만	20.73(3.25)	17.12(4.18)	19.42(5.23)
	30세 이상	17.56(4.19)	15.04(5.11)	16.28(4.68)
	평균	19.35(4.33)	16.46(5.17)	17.82(4.84)

<표 5>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상해 신념 비교

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학습영역	연령	654.74	1	654.74	33.24***
	학력	112.36	1	112.36	5.33*
	연령×학력	.44	1	.44	.03
	오차	3382.71	248	13.64	
강화영역	연령	133.24	1	133.24	16.62**
	학력	154.81	1	154.81	9.35**
	연령×학력	52.92	1	52.92	2.47
	오차	52.09	248	.21	
전 체	연령	2211.45	1	2211.45	24.06***
	학력	468.44	1	468.44	5.12*
	연령×학력	88.25	1	88.25	.87
	오차	359.52	248	1.45	

\* $p<.05$  \*\* $p<.01$  \*\*\* $p<.001$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 미만의 보육교사가 30세 이상의 보육교사보다 상해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8.64$ ,  $p<.01$ ). 하위영역에서의 상해 신념을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해 신념 하

위영역 중 학습영역에서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30세 미만의 보육교사들이 30세 이상의 보육교사들보다 학습영역( $F=9.33$ ,  $p<.05$ ) 상해 신념 점수가 더 높았고, 고졸 이하 보육교사가 대졸 이상 보육교사보다 학습영역( $F=5.11$ ,  $p<.05$ )의 상해 신념 점수가 더 높았다.

&lt;표 6&gt;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

하위영역	연령	학력		평균
		고졸 이하 <i>M(SD)</i>	대졸 이상 <i>M(SD)</i>	
학습영역	30세 미만	21.98(3.97)	17.26(4.24)	19.62(3.78)
	30세 이상	17.01(4.72)	16.99(5.33)	17.00(4.26)
	평균	19.44(3.86)	17.21(3.96)	18.31(5.41)
강화영역	30세 미만	13.19(3.55)	13.24(4.19)	13.21(3.87)
	30세 이상	13.22(5.01)	13.20(4.82)	13.21(4.45)
	평균	13.20(4.74)	13.22(3.98)	13.21(4.83)
전 체	30세 미만	18.11(4.35)	15.48(5.03)	16.73(4.13)
	30세 이상	15.13(4.71)	16.02(3.14)	14.89(5.58)
	평균	16.88(4.52)	14.33(4.32)	15.44(4.14)

&lt;표 7&gt;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 비교

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i>F</i>
학습영역	연령	58.46	1	58.46	9.33*
	학력	42.45	1	42.45	5.11*
	연령×학력	1.76	1	1.76	.03
	오차	538.32	260	2.07	
강화영역	연령	1.45	1	1.45	.20
	학력	18.64	1	18.64	1.34
	연령×학력	47.36	1	47.36	3.22
	오차	663.87	260	2.55	
전 체	연령	203.22	1	203.22	8.64**
	학력	525.17	1	525.17	4.13
	연령×학력	203.22	1	203.22	1.56
	오차	3745.16	260	14.40	

\* $p<.05$  \*\* $p<.01$ 

## 3)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 차이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8.26$ ,  $p<.05$ ),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안전 행동의 하위영역 중 화상사고( $F=10.48$ ,  $p<.01$ )와 추락사고( $F=7.28$ ,  $p<.01$ )에 대한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 이상 어머니들이 30세 미만 어머니들보다 화상사고와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 비교

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운수사고	연령	.13	1	.13	1.29
	학력	.34	1	.34	4.36
	연령×학력	.16	1	.16	.33
	오차	228.19	248	.92	
중독사고	연령	.66	1	.66	2.34
	학력	.26	1	.26	5.11
	연령×학력	.17	1	.17	.57
	오차	64.48	248	.26	
질식사고	연령	.01	1	.01	.04
	학력	.24	1	.24	.78
	연령×학력	.00	1	.00	.03
	오차	3310.12	248	13.35	
화상사고	연령	2.56	1	2.56	10.48**
	학력	.11	1	.11	.22
	연령×학력	.00	1	.00	.01
	오차	89.29	248	.36	
익수사고	연령	.24	1	.24	1.53
	학력	.28	1	.28	2.11
	연령×학력	.16	1	.16	1.95
	오차	9.44	248	.21	
추락사고	연령	.30	1	.30	7.28**
	학력	1.55	1	1.55	.20
	연령×학력	.28	1	.28	1.77
	오차	52.07	248	.21	
전 체	연령	13.46	1	13.46	8.26*
	학력	2.44	1	2.44	1.39
	연령×학력	.10	1	.10	.07
	오차	359.54	248	1.45	

\* $p<.05$  \*\* $p<.01$

4) 보육교사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 차이

보육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어머니의 경우와 같이 연령에 따라서만 안전 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F=9.14, p<.01$ ), 30세 이상 보육교사들이 30세 미만 보육교사들보다 안전 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사고 안전 행동에 있어

서 30세 이상 보육교사들이 30세 미만 보육교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F=14.55, p<.001$ ).

3.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의 관계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lt;표 9&gt;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 비교

하위영역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운수사고	연령	.22	1	.22	3.14
	학력	.37	1	.37	2.86
	연령×학력	.21	1	.21	.38
	오차	67.61	260	.26	
중독사고	연령	.44	1	.44	2.67
	학력	.46	1	.46	2.71
	연령×학력	.03	1	.03	.25
	오차	49.44	260	.19	
질식사고	연령	.02	1	.02	.37
	학력	.02	1	.02	.36
	연령×학력	.13	1	.13	3.44
	오차	89.18	260	.07	
화상사고	연령	3.75	1	3.75	14.55***
	학력	.15	1	.15	.65
	연령×학력	.15	1	.15	3.66
	오차	72.78	260	.28	
익수사고	연령	.01	1	.01	1.53
	학력	.22	1	.22	.86
	연령×학력	.00	1	.00	1.95
	오차	67.63	260	.26	
추락사고	연령	.68	1	.68	2.44
	학력	.25	1	.25	7.28
	연령×학력	.14	1	.14	1.77
	오차	62.43	260	.24	
전 체	연령	15.27	1	15.27	9.14*
	학력	2.83	1	2.83	.09
	연령×학력	.18	1	.18	1.00
	오차	200.14	260	.77	

\* $p<.05$  \*\*\* $p<.001$ 

행동의 하위영역인 학습과 강화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하위영역간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독사고와 질식, 화상, 익수사고 예방 행동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질식사고와 화상, 익수, 추락사고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보육교사간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표 10>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간의 관계

하위영역	학습	강화	운수사고	중독사고	질식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추락사고
학 습	1.00							
강 화	.64***	1.00						
운수사고	-.45**	-.33**	1.00					
중독사고	-.52***	-.55***	.12	1.00				
질식사고	-.33**	-.48***	.13	.24*	1.00			
화상사고	-.49**	-.35**	.05	.27*	.33***	1.00		
익수사고	-.37**	-.42**	.07	.22*	.23*	.23	1.00	
추락사고	-.27*	-.53***	.12	.11	.21*	.19	.13	1.00

\* $p < .05$  \*\*\* $p < .001$

약하고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이 보육교사에 비해 상해로부터 영유아가 위험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고통을 참는 능력이 커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더 많았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부모들이 상해 경험으로부터 영유아가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한 Lewis, DiLillo와 Peterson(2004)의 연구결과와 Morrongiello와 Dayler(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상해는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한 Bennet-Murphy(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가 상해의 경험을 통해 위험을 더 알게 되고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가정내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는 영유아의 사례를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즉 어머니들의 잘못된 상해에 대한 신념을 교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강화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어머니가 보육교사에 비해 낮은 안전사고 예방 행동 수준을 보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더 많이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 추락사고와 질식사고에 비해 운수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중독사고에 대한 안전 예방 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추락사고나 질식사고 보다 운수, 화상, 익수, 중독사고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전수칙 및 대처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30세 미만의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들이 더 강한 상해 신념을 지니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이면서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보육교사가 더 강한 상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30세 이상의 어머니들이 특히 화상사고와 추락사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세 이상 보육교사들이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화상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나 보육교사 모두 육아경험이 짧은 30세 미만의 보육자들이 영유아가 상해로부터 위험을 배운다는 상해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상해 신념이 영유아의 상해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젊은 보육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가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육자는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상해 경험으로부터 위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보는 보육자는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덜 하였다. 상해 신념은 영유아가 상해 경험을 통해 위험을 알게 되고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커질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상해 신념을 가진 보육자는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덜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보육자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상해에 대한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육자들이 상해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 상해의 발생원인 및 상해로 인해 영유아가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이 영유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 용품이 디자인되고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영유아 안전용품이 저렴하게 모든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Vincenten, Sector, Rogmans, & Bouter, 2005).

한편으로는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하위 영역간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났는데 특히 중독사고와 질식, 화상, 익수사고간에 그리고 질식사고와 화상, 익수, 추락사고 안전사고 예방 행동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화상

사고, 운수사고, 중독사고는 주로 보육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고 한 선행연구(Kisida, Shandor Miles, Holditch-Davis, & Carlson, 2001; Landen, Bauer, & Kohn, 2003; Saluja, Brenner, Morrongiello, Haynie, Rivera, & Cheng, 2004)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육자의 특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행동은 영유아에게 해당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독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행동하는 보육자는 영유아의 질식사고, 화상사고, 익수사고 등의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질식사고를 염려하고 안전실천을 행하는 보육자는 화상사고나 익수사고, 추락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어느 한 가지 측면의 영유아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보육자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상해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며 영유아는 한 번의 안전사고로 장애 및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30세 미만의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어머니와 보육교사에게 보다 심도 있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영유아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에 대한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에 대한 차이점을 알리는 자료가 되지만, 제한된 표본을 조사

하였으며 성인 보육자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상해 신념은 내·외적 통제신념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내·외적 통제신념 변인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해 신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어떠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영역에서 다루는데서 벗어나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 보육자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통계청(2008).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Bennet-Murphy, L. M. (2001). Adolescent mothers' beliefs about parenting and injury prevention : Results of a focus group.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15*, 194-199.
- Garling, A., & Garling, T. (1995). Mothers anticipation and prevention of unintentional injury to young children in the hom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0*(1), 23-26.
- Gra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73-584.
- Green, J., & Hart, I. (1998). Children's views of accident risks and prevention : A qualitative study. *Injury Prevention, 4*, 14-21.
- Kisida, N., Shandor Miles, M., Holditch-Davis, D., & Carlson, J. (2001). Unsafe caregiving practices experienced by 3-year-old children born prematurely. *Pediatric Nursing, 27*, 13-24.
- Landen, M. G., Bauer, U., & Kohn, M. (2003). Inadequate supervision as a cause of injury deaths among young children in Alaska and Louisiana. *Pediatrics, 111*, 328-331.
- Lewis, T., DiLillo, D., & Peterson, L. (2004). Parental beliefs regarding developmental benefits of childhood injuri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8*(1), S61-S68.
- Matheny, A.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accid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43*, 45-60.
- Morrongiello, B. A. (2005). Caregiver supervision and child-injury risk : I . Issues in defining and measuring supervision; II .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0*(7), 536-552.
- Morrongiello, B. A., & Dayler, I. (1996). A community-based study of par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related to childhood injuri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6), 383-388.
- Morrongiello, B. A., & Kiriakou, S. (2004). Mothers' home-safety practices for preventing six types of childhood injuries : What do they do, and wh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9*(4), 285-297.
- Morrongiello, B. A., Midgett, C., & Shields, R. (2001). Don't run with scissors : Young children's knowledge of home safety rul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2), 105-115.
- Munro, S. A., van Niekerk, A., & Seedat, M. (2005).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 The perceived impact of the environment, lack of supervision and child characteristics. *Care, Health & Devel-*

- opment, 32(3), 269-279.
- Peterson, L., Ewigman, B., & Kivlahan, C. (1993). Judgements regarding appropriate child supervision to prevent injury : The role of environmental risk and child age. *Child Development, 64*, 934-950.
- Peterson, L., Harbeck, C., & Moreno, A. (1993). Measures of children's injuries : Self-reported versus maternal-reported events with temporally proximal versus delayed reporting.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8*, 133-147.
- Reichert, A., & Hendricks, C. M. (1996). Parents' self-reported behaviors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of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School Health, 66*(7), 247-251.
- Saluja, G., Brenner, R., Morrongiello, B. A., Haynie, D., Rivera, M., & Cheng, T. L. (2004). The role of supervision in child injury risk : Definitio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11*, 17-22.
- Vincenten, J. A., Sector, M. J., Rogmans, W., & Bouter, L. (2005). Parents'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s child safety : A study in 14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12*(3), 183-189.

---

2009년 11월 1일 투고, 2010년 1월 20일 수정  
2010년 1월 21일 채택